외래어와 발음 문제

김 상 준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주간)

1. 머리에

우리들의 말은 소리말 - 음성 언어가 기본이 되고, 글자말 - 문자 언어는 소리말의 보조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국어 정책을 세우거나 말을 심의할 때는 문자언어보다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현 국어연구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에서는 외래어의 인명·지명편 용례집을 '86년 5월 30일 발행하고, 교과서용 일반 용어 용례집은 '87년 3월 30일 발행하여 외래어 표기의 원전이 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동구권 지명·인명(1992, 11, 27.), 북구권 지명·인명(1995, 3, 16.)을 보강하고, 수시로 들어온 외래어는 정부 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등 외래어의 표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어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의 중 하나는 '¬・⊏・ㅂ・ㅅ・ㅈ'으로 표기하는 말의 경음 표기 내지는 경음 발음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인명·지명에 대한 표기와 발음을 한국어 한자음으로 할 것인가 원지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 언어로서의 외래어라는 기준에서 발음(음성) 표현에 대한 문제점과 표기와의 갈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2. 외래어와 경음

일상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경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외래어의 대부분이 평음 내지는 격음으로 표기하여 외래어 표기 정책에서 경음 배제 원칙이 지나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경음으로 발음하는 외래어를 마치 일본말의 영향이라고 몰 아세워 부정적으로 보는 일이 많다.

그러나 'ㄱ, ㄷ, ㅂ, ㅅ, ㅈ'으로 표기하고 있는 'g, d, b, s, c, psy, j'로 시작되는 말의 일부는 원음이 명백하게 경음으로 소리 나거나, 관용으로 이미 굳어진 경우에는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말은 자음의 음상에 따라 어감에 차이가 나는 말이 많기 때문에 'ㄱ-ㄲ-ㅋ, ㄷ-ㄸ-ㅌ, ㅂ-ㅃ-ㅍ, ㅅ-ㅆ, ㅈ-ㅉ-ㅊ'으로 구분되는 자음의 다양한 발음 기능을 좋은 특징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우리말의 경음을 나쁜 소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은 말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음까지도 국어의 변천 과정에서 전쟁을 겪는 동안 평음이 거친 된소리로 변했다고 부정적으로 단정하 는 학계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 с, н, 人, ス' 중에서 '人'은 더 많은 어휘가 있기 때문에 우선 '¬, с, н, ス'이 '¬, к, н, 찌'으로 소리 날 수밖에 없는 말 몇 개를 예로 들어 본다.

gas : 가스 → 까스

gang : 갱 → 깽

gown : 가운 → 까운

dam : 댐 → 땜

dollar : 달러 → 딸러 bus : 버스 → 뻐스

bag : 백 → 빽 jam : 잼 → 쨈

이상의 말처럼 'g, d, b, j'로 시작된 말에서 1음절이나 2음절 정도의 말로, 모음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거의 모두 우리말에서 경음으로 소리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경우와 달리 's, c, psy' 계열은 더 확실하게 경음과 평음으로 나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 자체를 고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s' 뒤에 자음이 이어지면 우리말 발음에서 평음이 되지만, 단모음이 이어지면 거의 모두 경음으로 소리난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식 영어로 바꾼 뒤에 정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외래어에서 's'는 단순히 '시'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현실 언어와 가장 심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몇 가지 유형으로 's, c, psy'의 우리말 발음을 정리해 본다.

(1) 경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

① 's' 뒤에 모음이 올 때

우리말로 표기했을 때, 'ㅏ, ㅓ, ㅗ, ㅜ, ㅐ, ㅔ, ㅣ'가 이어지면 '사, 서, 소, 수, 새, 세, 시'가 아니라 '싸, 써, 쏘, 쑤, 쌔, 쎄, 씨'가 자연스럽다.

(예)	Santa Claus	산타클로스 → 싼타클로스
	service	서비스 → 써비스
	surfing	서핑 → 써핑
	sonata	소나타 → 쏘나타
	soup	수프 → 쑤프
	saxon	색슨 → 쌕슨
	second	세컨드 → 쎄컨드
	seat	시트 → 씨트

symphony 심포니 → 씸포니

② 's' 뒤에 이중모음이 올 때

'ei, ai, au' 등 중모음으로 이어지는 말은 우리말 단모음 'ㅔ, ㅏ, ㅣ' 등의 단모음으로 인정하여 위 ①항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예)	sales	세일즈 → 쎄일즈
	side	사이드 → 싸이드
	sound	사운드 → 싸운드

③ 's'에 'c'가 이어질 때

'sc'에 모음 'e. i'가 이어지면 경음으로 소리난다. 그러나 'sc'에 'a'가 이어지는 'scale'은 예외에 속한다.

(예) scene

신 → 씬

scenario

시나리오 → 씨나리오

science

사이언스 → 싸이언스

④ 'c. psv'의 경우

'c, psy'로 시작되는 말도 몇 개의 한정된 모음이 이어지면 우리말에서 경음으 로 소리난다.

(예) centimeter 센티미터 → 쎈티(치)미터

census

센서스 → 쎈서스

city

시티 → 씨티 서클 → 써큼

circle

사이키 → 싸이키

psyche psycho

사이코 → 싸이코

⑤ 기타

'sh'로 시작된 말은 거의 모두 평음으로 나지만 다음의 몇 개는 경음으로 나 는 경우가 많다.

<예〉 shopping

쇼핑 → 쑈핑

short

쇼트 → 쑈트

shoulder

숄더 → 쑐더

show

쇼 → 쑈

(2) 평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

's'로 시작하면서 자음이 이어지고, 우리말로 '스'로 표기되는 말은 대부분 평 음으로 소리 난다.

(예)	scale	스케일
	school	스쿨
	shaft	샤프트
	sketch	스케치
	slide	슬라이드
	smog	스모그
	snack	스낵
	space	스페이스
	square	스퀘어
	stop	스톱
	sweater	스웨터

(3) 'g, d, b, j'의 경우

's' 처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 'ㄱ, ㄷ, ㅂ, ㅈ'으로 표기하고 있는 'g, d, b, j' 경우도 일상 언어에서 경음으로 굳어진 말이 많다. 이 경우도 's'처럼 뒤에 모음이 이어지면서 단음절이나 2음절일 때 경음이 나는 말이 많다. 특히 이 경우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관용을 인정하기 위한 수정 작업도 간단하리라 본다.

예시어는 이 글 '2. 외래어와 경음' 서두에 제시했다.

(4) 알파벳의 명칭

알파벳 명칭도 경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반 영해야 한다. 국어연구소에서 1988년에 편찬한 외래어 일반 용어 표기 용례집에 는 친절하게 알파벳 명칭을 표기했다.

그러나 영어를 중심으로 한 알파벳 자음의 표기와 발음은 관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예〉B 비/삐 C 시/씨 R 아르/알 S 에스/에쓰

V 브이/비

Z 제트/지

이상의 예에서 '비, 시, 아르, 브이, 제트'가 표기법에 실린 표기이다. 그러나 '삐, 씨, 알, 비, 에쓰, 지'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관용을 무시하여 말을 딱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라는 편리함 뒤에 현실 발음과 동떨어진 발음으로 오히려 불편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약어의 표기법과 현실 발음을 예로 들어 본다.

에이비시 → 에이비씨 〈예〉 ABC

> CBS 시비에스 → 씨비에쓰

BCG 비시지 → 비씨지

DMZ 디엠제트 → 디엠지

KBS 케이비에스 → 케이비에쓰

MBC 엠비시 → 엠비씨

RPM 아르피엒 → 알피엒

에스오에스 → 에쓰오에쓰 SOS

TV 티브이 → 티비

(5) 구개음의 문제

외래어 일반 용어 표기 용례집에는 '튜 → 투' 유형이 '츄 → 추' 유형으로 바 뀐 발음을 인정할 말이 있다.

(예) amateur 아마추어

amateurism 아마추어리즘

이것은 우리말 구개음화처럼 '티우 → 치우'의 변화를 인정한 것으로 현실음 을 반영한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같이 → 가티 → 가치'의 변화처럼 '미닫이 → 미다디 → 미다지'의 변 화를 인정한 예도 있다.

(예) schedule

스케줄

scheduler 스케줄러

이렇게 우리말 구개음을 인정해도 될 말이 또 있다

(예) centi

센티 → 센치

centiliter

세티리터 → 세치리터

centimeter

센티미터 → 센치미터

혹시 센티를 센치로 인정해야 한다면 팬티를 패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비아냥 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추어, 스케줄, 센치'처럼 발음의 배열이 우리말 구개음이 나오도 록 된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고치지 않아도 언어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다.

(예) module

모듈(모줄×)

panties

팬티(팬치×)

duty

듀티(주티x)

tuner

튜너(추너×)

그러나 tulip(튤립) 꽃은 아슬아슬하게 튤립과 출립으로 양분되 느낌이다.

(6) 마찰음 'f'의 발음

'훼밀리, 화일, 화이팅, 화운데이션, 화이버' 등은 소위 우리말 외래어의 오용 사례집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각종 상표명을 살펴보면 원칙으로 내세운 '피'보다 'ㅎ'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패밀리, 파일, 파이팅, 파운데이션, 파이버'로는 어딘가 어색하다. 표기뿐만 아니라 발음도 영어의 파열음 [p] 발음이 아닌 마찰음 [f]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

결론적으로 'f'는 표기는 '파'으로 통일했더라도 발음은 파열음 [p]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마찰음 [f]도 인정해야 언중들의 언어 생활이 편해지리라 믿는다.

3. 중국 인명ㆍ지명의 표기와 발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중국의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종전의 한 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명의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 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인명·지명의 표기 원칙에서는 "중국 인명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구분은 대체로 종래와 같이 신해혁명(辛亥革命)을 분기점으로 한다. 다만,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는 인명에 대하여는 장개석, 모택동과 같은 표기를 관용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명의 경우 상해, 황하를 허용하는 정신과도 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강택민 중국 국가 주석을 '江澤民(장쩌민)'과 같은 형태로 원지음을 쓰는가 하면 '江澤民(강택민)'과 같은 형태로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3백만 동포나 살고 있는 중국 현지의 우리 동포 신문·방송은 강택민, 전기침, 모택동으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다. 지명 또한 북경, 상해는 물론이고 연변 자치주, 연길시, 길림성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발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우리말 뉴스 원고를 소개한다.

"신화 통신사의 보돕니다.

국무원 전기침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조어대 국빈관에서 중국 과학기술협회 제5차 전국 대표대회에 출석한 향항, 오문지역 특별 대표단을 회견했습니다.

전기침 부총리는 내지와 향항, 오문 사이의 과학기술협력 전망에 낙관을 표시했습니다."(중국 중앙인민방송국 한국어 뉴스, 1996. 5. 31.)

이 기사에서 인명과 지명을 비롯한 고유 명사를 뽑으면 다음과 같다.

전기침, 조어대, 향항, 오문.

동일자의 다른 기사를 소개한다.

"인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교육법〉집법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검 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교육법〉집행 검사로 제1차 전원회의가 어제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운과 비효통, 뢰결경, 정사원, 부허, 오계평을 비롯한 부위원장들이 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들의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말 한 자음으로 표기하고 발음하면서 시원스럽게(?) 살고 있다. 연변은 옌볜이라 하지 않으며, 흑룡강성을 헤이룽짱 성이라 하지 않고, 요동반도를 랴오뚱 반도라 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중국과 교류하면서도 중국 원지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중국계 연예인들의 이름을 중국 원지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윤발, 왕조연, 이소룡, 이연걸, 홍금보…….

물론 이렇게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에 참가자 명단은 원지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자료들을 주고 받는다. 이럴 때는 우선 원지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원지음과 한국 한자음을 겸용해서 쓰는 묘수를 발휘해야 한다.

중국의 인명·지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해서 발음하면 우리말 발음과 원지음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일본의 인명·지명은 음독과 훈독을 병행하거나 훈독만 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 한자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데 무리가 있다.

중국과의 오랜 교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지음을 따르지 않고 한국 한자음

으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불러 온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또한 중국어에는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과 같은 발음과 표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민족 주체성의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4. 일본의 인명・지명 표기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일본의 인명·지명은 훈독과 음독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 원지음으로 표기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원지음 표기가 경음 [된소리]를 배제하고 격음 [거센소리]를 택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어의 파열음을 된소리가 아닌 거센소리를 택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를 표기할 때 된소리를 쓴 다.

우리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국의 인명·지명이 일상 언어에서는 관용의 법칙에 따라 거센소리를 피하고 된소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거센소리를 택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첫 음절에서는 경음이나 격음이 아닌 평음을 쓰도록 했는데도 격음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예〉도쿄 → 토쿄 간사이 → 칸사이 지요코 → 치요코 가마쿠라 → 카마쿠라

음성학적으로 일본어의 파열음이 경음이 아니라 무기음이라는 주장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때는 격음이 아닌 경음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경음 [된소리]는 나쁜 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빠리 보다는 파리가, 꽁꼬드보다는 콩코드가, 꼬냑 보다는 코냑이 듣기 좋은 소리라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영어에서도 파열음 'p'가 낱말 중에 있으면 격음의 거센소리가 아니라 경음으로 약화되는 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고시된 일본어 표기법을 고치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표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발음은 된소리 발음을 인정하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면 격음의 발음보다 경음 [된소리] 발음이 편하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

(예) 하카타 → 하까따 다카라쓰카 → 다까라쓰까 후쿠치야마 → 후꾸찌야마 기타카미 → 기따까미 이치키자키 노리코 → 이찌끼자끼 노리꼬 오쿠라 신페이 → 오꾸라 신뻬이 이타가키 다이스케 → 이따가끼 다이스께 사카모토 도모카즈 → 사까모또 도모까즈

5. 결 론

우리의 국어 정책은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국민들이 - 언중들이 - 편안하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각종 어문 규범을 보면 지나치게 법을 앞세워 언중을 통제하는 규범이 많다. 자유분방하게 방치하여 규범을 파괴해서는 곤란하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범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 말하자면 영주권은 물론이고 시민권까지 받고나서 귀화까지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게정한 외래어들은 우리말의 음운 배열과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